논어 5편 공야장 10장 · 원문·풀이

宰予晝寢。子曰：「朽木不可雕也，糞土之牆，不可杇也；於予與何誅！」子曰：「始吾於人也，聽其言而信其行；今吾於人也，聽其言而觀其行；於予與改是。」

독음 · 재여주침 자왈 후목불가조야 분토지장 불가오야 어여여하주 자왈 시오어인야 청기언이신기행 금오어인야 청기언이관기행 어여여개시

쉬운 풀이(요약) · 재아의 낮잠을 보고 공자는 말만 듣고 행동을 믿던 태도를 고쳐, 이제 말을 듣고 실제 행동도 살피겠다고 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宰 주관할 재 재 / 予 자기 여 여 / 晝 낮 주 주 / 寢 잠잘 침 침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朽 썩을 후 후 / 木 나무 목 목

不 아닐 불 / 可 옳을 가 가 / 雕 독수리 조 조 / 也 어조사 야

糞 똥 분 분 / 土 흙 토 토 / 之 갈 지 / 牆 담 장 장

杇 흙손 오 /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 與 너울너울할 여 여 / 何 어찌 하 하

誅 벨 주 주 / 始 비로소 시 시 / 吾 자기 오 오 / 人 사람 인

聽 들을 청 청 / 其 그 기 / 言 말씀 언 언 / 而 말이을 이

信 믿을 신 신 / 行 다닐 행 행 / 今 이제 금 금 / 觀 볼 관 관

改 고칠 개 개 / 是 이 시 시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